

강이야기

4

River & Culture



신현배 | 시인, 아동문학가
(4201708@hanmail.net)

하천에 얽힌 옛이야기

홍수가 난 강과 나무 도령

까마득히 먼 옛날, 하늘 가까운 어느 언덕에 계수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천 년이나 묵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선녀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와 계수나무 아래에 앉아 놀다 가곤 했습니다.

선녀는 계수나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품에 안겨 노래를 부르고, 나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선녀와 계수나무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선녀는 귀여운 사내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선녀와 계수나무는 아이를 '나무 도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무의 아들이기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선녀는 나무 도령이 일곱 살이 되자, 나무 도령을 계수나무에게 맡기고 하늘나라로 떠나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나무 도령은 계수나무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야 했습니다.

나무 도령이 열 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여름날, 계수나무가 나무 도령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밤에 큰비가 내릴 거야. 어찌면 홍수가 날지도 몰라.”

계수나무의 예상은 들어맞았습니다. 그 날 밤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강물이 불어났습니다. 강물은 금

세 눈발을 삼키고 마을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뒷산도 물에 잠겨 온통 물바다로 변해 버렸습니다.

계수나무는 뿌리째 뽑혀 물 위로 쓰러졌습니다.

나무 도령은 물 속에 풍덩 빠졌습니다.

이 때 계수나무가 소리쳤습니다.

“아들아, 어서 내 등에 올라타라!”

계수나무는 물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나무 도령은 물 속을 헤엄쳐 계수나무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계수나무 가지들 간신히 붙잡아 계수나무 등에 올라탔습니다.

나무 도령은 계수나무에 몸을 실은 채 두둥실 떠내려갔습니다. 며칠 밤낮을 그렇게 떠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득히 넓고 끝없이 펼쳐진 물바다뿐이었습니다.

그사이 비는 그쳤습니다. 하늘에는 오랜만에 해가 동실 떠 올라 있었습니다.

나무 도령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몸을 맡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살려 주세요.”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 도령이 돌아보니 개미떼였습니다. 물 위를 새까맣게 뒤덮은 채 힘없이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무 도령은 개미떼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계수나무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개미떼를 태워 줄까요?”

계수나무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렴.”

나무 도령은 아버지 허락을 받자마자 개미들을 건져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개미들은 계수나무 등에 올라타며 인사를 했습니다.

또 얼마쯤 떠내려가는데 어디선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나무 도령이 물 위를 살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예요, 여기……!”

나무 도령은 소리 나는 곳으로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모기 떼가 앵앵거리며 허공을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태워 주세요. 앓아 쉴 데가 없어 계속 날아다녔더니 날개가 끊어질 듯 아파요.”

모기들은 기어드는 목소리로 나무 도령에게 애원했습니다.

나무 도령은 지칠 대로 지쳐 있는 모기들을 보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또 계수나무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모기떼도 태워 줄까요?”

계수나무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렴.”

나무 도령이 모기들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고생 많았지? 여기 앓아 쉬었다 가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기들은 다투어 인사하며 계수나무 가지와 잎사귀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무 도령과 개미떼와 모기떼를 태운 계수나무는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얼마나 떠내려갔을까,

“사람 살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 도령이 둘러보니, 자기 또래의 사내아이 하나가 물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빨리 구해줘야겠지요?”

나무 도령은 당연하다는 듯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계수나무는 뜻밖에도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모르는 척 해라.”

나무 도령은 계수나무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척 하라니요?”

“사람은 짐승과 다르단다. 은혜를 베풀면 원수로 갚는 수가 있거든.”

나무 도령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나중에 생각

하고 사람 목숨부터 구해야 한다니까요!”

“안 돼! 저 아이를 태워선 절대 안 돼!”

“아버지! 이렇게 두 손 모아 빌어요. 저 가엾은 아이를 구하게 해 주세요, 네?”

나무 도령은 울먹이며 계수나무에게 매달렸습니다. 어찌나 애처롭게 사정하는지 승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수나무는 마지못해 승낙하면서도 이런 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진작에 아버지 말을 들을 걸 하고…….”

나무 도령은 계수나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죽어 가는 아이를 구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었습니다.

나무 도령은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나무 도령은 아이를 계수나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계수나무는 나무 도령과 개미떼와 모기떼와 아이를 태우고 정처 없이 떠내려갔습니다.

며칠 뒤 일행은 어느 섬에 닿았습니다. 그 곳은 섬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봉우리였습니다. 그 곳만 물이 차지 않고 솟아 있어 섬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나무 도령과 개미떼와 모기떼와 아이가 계수나무 등에서 내렸습니다.

개미떼와 모기떼는 나무 도령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어디론가 가 버렸습니다.

계수나무는 견지 못하기 때문에 물가에 남았습니다.

나무 도령과 아이는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꼭대기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산꼭대기에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초가집에는 할머니와 여자 아이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자 아이 둘은 나무 도령 포레였습니다. 한 여자 아이는 할머니의 딸인데 얼굴이 고왔습다. 그리고 다른 여자 아이는 물에 떠내려온 것을 할머니가 구해 줬는데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할머니는 나무 도령과 아이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흥수가 났는데도 용케 살아 있었구나. 우리 집에서 우리와 같이 살자꾸나.”

할머니는 두 남자 아이가 쓸 방을 내주었습니다.

나무 도령과 아이는 할머니 집에 살면서 농사일을 했습니다. 초가집 주변의 땅을 일구어 논과 밭을 만들었고, 농작물을 가꾸어 풍성한 수확을 올렸습니다.

두 남자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자, 할머니는 두 처녀와 짝을 지어 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두 청년은 할머니의 딸과 맺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 딸아이는 둘 중에서 재주 있는 똑똑한 총각에게 시집 보내야지.’

물에서 건져진 청년은 할머니 생각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실망시켜 나무 도령을 할머니 눈 밖에 내게 하려고 일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런 재주를 가진 사람 보셨습니까? 모래밭에 쫓살 한 섬을 흩어 놓아도 그것을 한 나절 만에 도로 주워 담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모래 하나 섞이지 않겠?”

“예.”

할머니는 누가 그런 재주를 가졌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나무 도령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거짓말을 참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도령을 불러 그 놀라운 재주를 내게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나무 도령이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바닷가 모래밭에 쫓살 한 섬을 뿌려 놓고 왔다. 그러니 어서 그 재주를 발휘해 보아라. 내가 한 나절 뒤에 가겠다.”

나무 도령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바닷가 모래밭에 가서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에 불을 켜도 모래에 섞인 쫓살을 주워



“두 처녀를 각각 다른 방에 넣어 두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아무 방이나 골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만난 처녀와 부부가 되겠습니다.”

“그것 참 괜찮은 방법이로구나.”

할머니는 청년이 제안한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청년을 밖으로 내보낸 뒤 두 처녀를 각각 다른 방에 넣어 두었습니다. 동쪽 방과 서쪽 방이었습니다.

답을 수 없었습니다.

나무 도령이 한숨을 쉬고 있을 때 개미떼가 나타났습니다. 나무 도령은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개미떼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쯤은 식은 죽 먹기니까요.”

개미들은 모래밭으로 흩어지더니 좁쌀을 물어 날랐습니다. 순식간에 좁쌀 한 섬이 다 모아졌습니다.

한 나절 뒤 할머니가 와서 보고는 나무 도령을 칭찬했습니다.

“귀신같은 솜씨네. 이 좋은 재주를 여태 숨기고 있었어?”

청년은 배가 아팠습니다. 나무 도령을 눈 밖에 나게 하려다가 오히려 눈에 속 들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두 처녀와 두 청년을 한 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도령을 사위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야까 지켜보니 좁쌀 한 섬을 주워 모은 것은 개미떼였습니다. 남의 힘을 빌린 것뿐인데, 그게 무슨 재주라고 사위를 삼으려 하십니까?”

“그럼 너는 어떤 방법으로 짝을 찾았으면 좋겠느냐?”

할머니가 묻자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잠시 뒤, 나무 도령은 마당가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어느 방으로 들어가지?’

그 때였습니다. 앵앵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모기들이 날아왔습니다. 모기들은 나무 도령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동쪽 방으로 들어가세요.”

나무 도령은 동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할머니의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도령은 모기의 도움으로 할머니의 사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서쪽 방으로 들어간 청년은 다른 처녀와 결혼했습니다.

이리하여 이 땅에는 두 쌍의 부부가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많은 후손을 낳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는 것은, 나무 도령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구해 준 아이의 후손들이 여전히 남을 속이며 악하게 살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